

Date

2022.08.29.

Contact

김봉환

기업평가본부 책임연구원

02.2014.6377

bonghkim@nicerating.com

최중기

기업평가본부 실장

02.2014.6251

choijk@nicerating.com

Contents

- I. 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2
- II. 지배구조 분석5
- III. 사업분석6
- IV. 재무분석 11
- V. 주요 계열사 등급변동 현황 및 향후 방향성 12
- Appendix 1: 현대중공업그룹 주요 계열사 등급현황 및 등급 변동 검토요인 13
- Appendix 2: 현대중공업그룹 주요기업 사업 및 재무현황. 15

현대중공업그룹분석

조선부문 신규수주 및 신조선가 추이, 정유화학부문의 실적 보완 효과 지속 여부 모니터링

Summary

현대중공업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

- 조선부문은 강제가 상승, 소송 총당금 설정 등으로 수익성 저조
- 조선부문의 2021년 이후 신규수주 확대 및 신조선가 상승 추세 지속 여부
- 정유화학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조선 부문의 부진한 실적 보완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 정유화학 등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사업영역에서 국내외 수위권의 시장지위를 유지하면서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은 조선(선박, 해양플랜트), 정유화학(정유, 석유화학), 건설장비(굴삭기, 휠로더), 전기전자(변압기, 차단기) 등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매출비중은 조선 36.1%, 정유화학 48.1%, 건설장비 11.6%, 전기전자 4.2% 수준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룹은 사업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각 사업영역에서 국내외 수위권의 시장지위를 유지하면서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조선 부문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유화학 부문의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조선 부문의 실적 저하를 보완하고 있다. 최근 조선 부문은 주요 원자재인 강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 손실총당금 설정, 통상임금 소송 관련 총당금 설정 등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정유화학 부문은 유가 상승으로 사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건설기계 부문은 코로나19 영향 완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선진국, 신흥국의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전력기기 부문은 최근 구조조정을 통한 고정비 절감, 스마트팩토리 구축, 복미법인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조선 부문의 실적 저하를 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룹의 전반적인 사업실적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특히, 2022년 상반기에는 정유화학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그룹 합산 매출액 29조원, EBIT 1.7조원, EBIT/매출액 5.9%로 사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룹 전반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차입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2022년 6월말 그룹의 부채비율은 202.2%, 차입금의존도 31.9%, 총차입금/EBITDA 4.0배, EBITDA/금융비용 6.7배로 재무안정성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

2021년에는 정유화학 부문의 CAPEX 부담 지속,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위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계열 편입에도 불구하고, 현대글로벌서비스 Pre-IPO(지분율 38%, 선배당 포함 0.8조원), 조선해양부문 신규 수주 증가에 따른 선수금 유입, 현대중공업 IPO 등을 통해 그룹의 차입금의존도는 전기말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정유화학부문의 사업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으로 운전자금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그룹의 차입금 규모는 소폭 증가하였다.

I. 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

조선부문은 강제가 상승, 소송 총당금 설정 등으로 수익성 저조

조선부문은 2021년 이후 강제가 상승 등으로 영업손실 지속 중이나,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

그룹의 조선부문은 과거 수년간 부진했던 신규 수주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호황기 대비 크게 축소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주요 원재료인 강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손실총당금 설정,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총당부채 설정 등으로 1.4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영업수익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2022년 상반기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0.7조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영업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06	2022.06
매출액	153,182	130,915	151,826	149,037	154,934	74,788	80,963
EBIT	1,014	-5,109	2,902	744	-13,848	-8,298	-6,615
EBIT/매출액	0.7%	-3.9%	1.9%	0.5%	-8.9%	-11.1%	-8.2%

자료: 각 사 공시자료

주: 2018년 이전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별도재무제표 합산, 2019년 이후 한국조선해양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1년 이후 신조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회사의 신규 수주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주와 매출 발생 시점간 시차를 고려할 때 2020년 부진한 신규 수주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매출 규모는 정체될 것으로 보이고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어 절대적 수익성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손실 반영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 차입금의 존도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손실 반영으로 자본 규모가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신규 수주에 따른 선수금 유입이 증가하였고, 현대중공업의 IPO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면서 차입금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영업수익성 회복 시점까지 실적 저하를 흡수할 수 있는 재무적 완충능력 유지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선부문 재무지표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06
자산	250,554	252,442	272,931	299,217
부채	121,291	128,230	148,793	177,159
자본	129,263	124,212	124,138	122,058
총차입금	53,462	64,393	52,603	54,431
순차입금	16,403	18,941	328	617
부채비율	93.8%	103.2%	119.9%	145.1%
차입금의존도	21.3%	25.5%	19.3%	18.2%
순차입금의존도	6.6%	7.5%	0.1%	0.2%

자료: 한국조선해양 공시, IR자료

주: 한국조선해양 연결재무제표 기준

조선부문의 2021년 이후 신규수주 확대 및 신조선가 상승 추세 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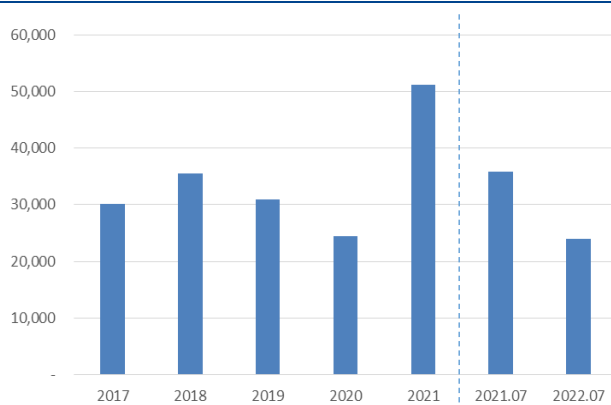
조선부문의 양호한 신규수주 및 신조선가 상승 추세 유지 여부 모니터링

2022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신규 발주량이 3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LNG선의 신규 발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조선부문은 2022년 상반기 140억\$를 수주하여 전년 동기 대비 신규수주가 9.6% 증가하였다. LNG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천연가스 수급 변동이 나타남에 따라 유럽의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2020년 슬롯 계약을 체결하였던 카타르 프로젝트의 신규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2022년 상반기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하였다. 다만, LNG선 이외의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주요 선종들은 전년 동기 대비 발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상반기 대규모 발주 영향 등으로 하반기 이후 LNG선의 발주량도 감소할 경우 조선 부문의 신규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LNG선은 2022년 상반기에만 과거 역대 최대 발주량을 기록하였던 2021년 연간 발주량 이상의 신규 발주가 이루어졌다.

조선부문의 2022년 6월말 기준 수주잔고는 360억\$로, 2021년 조선부문 매출액의 3배 이상의 수주잔고를 확보하여 사업안정성이 과거 대비 개선되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공사손실충당금 설정으로 선제적으로 반영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큰 폭의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한 신조선가를 반영한 수주 물량이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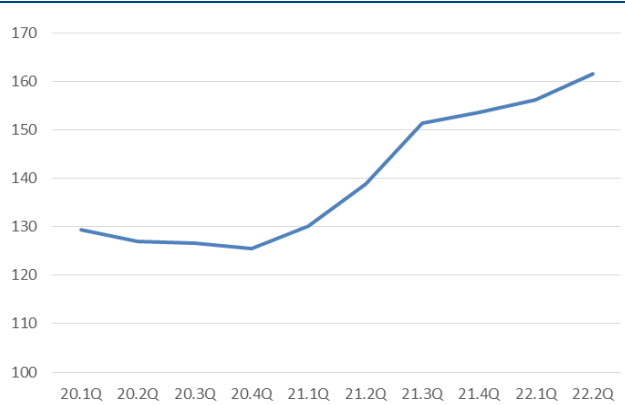
신조선가는 2020년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조선사들의 수주잔고 증가에 따른 협상력 강화, 주요 원재료인 강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신조선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침체 등으로 신규 발주량이 크게 감소할 경우 선가 상승 추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발주가 지속되어, 조선부문의 양호한 신규 수주 및 신조선가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글로벌 신규 발주량 추이



자료: Clarksons Research

신조선가 추이



자료: Clarksons Research

정유화학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조선 부문의 부진한 실적 보완

최근 조선부문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정유화학 부문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조선부문의 부진한 실적을 보완

2021년 이후 조선부문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정유화학 부문은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조선부문의 부진한 실적을 보완해주고 있다.

그룹 매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정유화학 부문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9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그룹의 영업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바 있다. 다만, 2021년 이후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고관련 손익 효과, 정제 마진 및 석유화학제품 스프레드 회복, 2020년 11 월 연결편입된 유허기유사업의 우수한 이익창출력 등을 바탕으로 연결기준 1.1조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공급망 혼란이 발생하면서 유가와 정제마진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정유 부문의 2022년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과거 대비 크게 확대된 16조원, 2.1조원을 기록하였다.

현대중공업그룹 정유화학 부문 영업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06	2022.06
매출액	163,873	215,036	211,168	136,899	206,066	94,805	160,434
EBIT	11,378	6,610	5,220	-5,933	11,424	6,785	20,748
EBIT/매출액	6.9%	3.1%	2.5%	-4.3%	5.5%	7.2%	12.9%

자료: 현대오일뱅크 공시자료

정제마진 지표(IEA 발표 Singapore Dubai hydrocracking기준)는 2021 년 상반기에 3 USD/bbl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하반기 평균 5 USD/bbl 수준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2022 년 1 분기에는 평균 11.9 USD/bbl, 2분기에는 20USD/bbl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지속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정유 부문 수익성도 글로벌 이동 수요 회복추세와, 유럽지역의 석유제품 공급불안 등을 고려시 전년 대비 개선된 수준을 보이면서, 우수한 영업이익 창출 기초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석유화학 부문의 경우 주요 석유화학제품인 MX의 전방인 PX제품의 부진했던 시황과 중국의 봉쇄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신규설비인 HPC의 주요 제품군인 에틸렌계열의 마진 스프레드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중기적으로 전방 PX 및 PTA 증설 수준, 최종 수요회복기조 등을 감안하면 점차 수급상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2 년 상반기부터 신규설비(HPC) 상업가동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수익창출 기반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점진적인 이익창출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지배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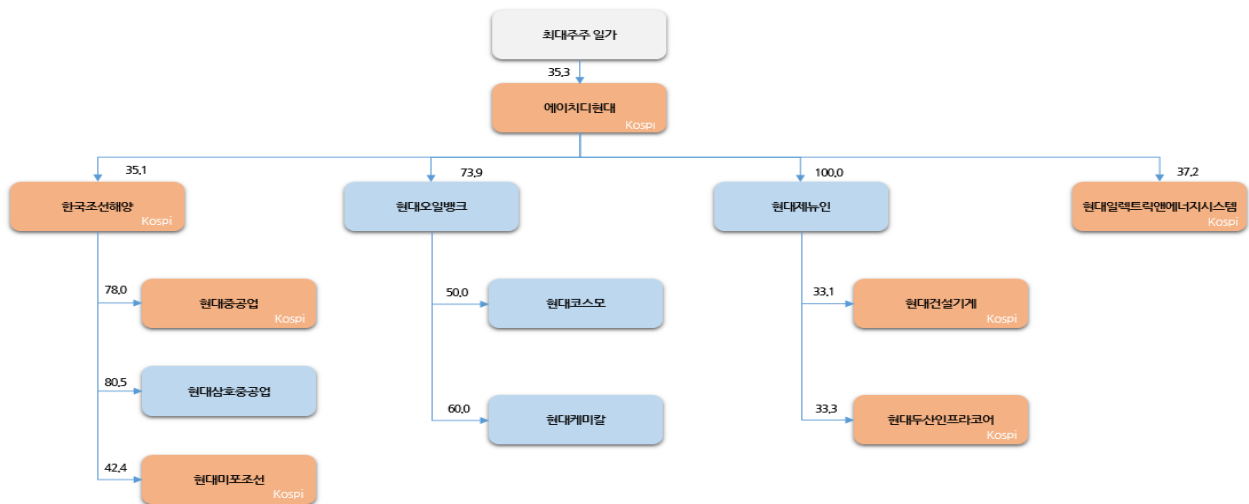
에이치디현대(주) 중심의 지주회사 체제이며, 에이치디현대(주)가 주요 계열사를 안정적으로 지배

그룹은 2017년 3월까지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및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3사를 중심으로 그룹 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동년 4월 현대중공업이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투자 부문으로 인적분할된 이후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지주에 대한 대주주의 분할 3개사 지분 현물출자, 현대중공업지주의 계열사 지분 공개매수, 현대미포조선 순환출자 해소, 하이투자증권 매각 등 일련의 지배구조 체제 전환 작업이 진행되면서 2018년 중 그룹 지배구조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현대중공업지주는 2022년 사명을 에이치디현대로 변경하였다.

최대주주 일가는 에이치디현대 지분의 35.3%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치디현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서 잔여 지분의 분산 정도가 높아 최대주주 일가의 그룹에 대한 경영권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현대중공업그룹 주요 계열사 출자구조

단위: %



자료: 각 사 공시자료(2022년 6월말 기준)

그룹 조선부문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2019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사업자회사를 물적분할하여 설립하고,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하여 자회사 관리 및 투자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이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를 지배하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그룹 지주회사인 에이치디현대는 2022년 1분기 한국조선해양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다.

그룹의 건설기계 부문은 현대제뉴인을 중심으로 한 중간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룹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인수를 위해 2021년 2월 현대제뉴인을 설립하였으며, 에이치디현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이후 2021년 8월 에이치디현대(구 현대중공업지주)가 현대건설기계 지분 33.1% 전량을 현대제뉴인에 현물출자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29.9%를 취득하면서 그룹의 건설기계 중간지주사로 출범하였다.

III. 사업분석

금번 보고서의 사업분석은 2022년 6월 기준 재무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룹의 사업은 조선, 정유화학, 건설장비, 전기전자로 구분되며, 각 부문의 주요 계열사는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 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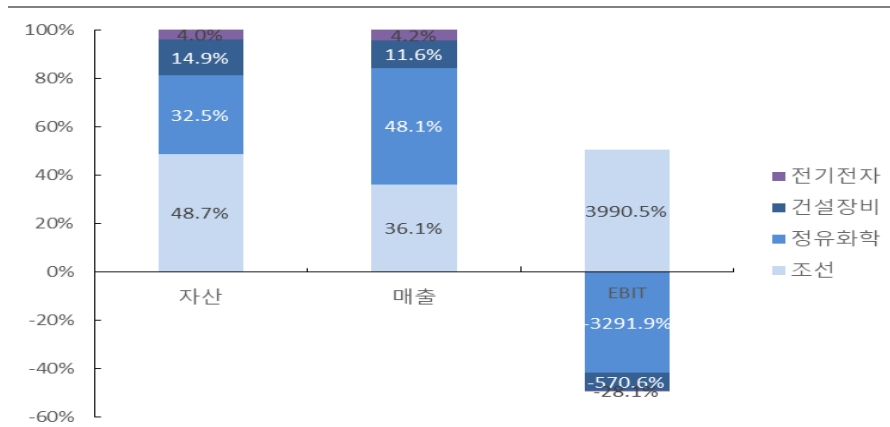
주요 분석 대상기업

구분(개수)	계열사
조선(3)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정유화학(1)	현대오일뱅크
건설장비(2)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전기전자(1)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조선, 정유화학, 건설장비, 전기전자로 다각화된 사업구성과 각 부문의 우수한 시장지위로 높은 사업안정성 확보

그룹은 조선(선박, 해양플랜트), 정유화학(정유, 석유화학), 건설장비(굴삭기, 휠로더), 전기전자(변압기, 차단기) 등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매출비중은 조선 36.1%, 정유화학 48.1%, 건설장비 11.6%, 전기전자 4.2% 수준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룹은 사업위험을 분산하는 한편, 각 사업영역에서 국내외 수위권의 시장지위를 유지하면서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부문별 비중(2021년)



자료: 각 사 공시자료, NICE신용평가 재가공

주1: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 연결), 정유화학 1사(현대오일뱅크 연결), 건설장비 2사(현대건설기계 연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결 합산), 전기전자 1사(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연결) 기준

주2: 2021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실적은 인수 이후(2021년 8-12월) 사업실적만 포함

그룹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3개사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 및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0년 현대오일뱅크 인수 이후 정유화학사업이 그룹의 사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8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여 건설기계 부문의 사업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조선해양 부문은 주요 원자재인 강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손실총당금 설정, 통상임금 소송 관련 총당금 설정 등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정유화학 부문은 유가 상승으로 사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건설기계 부문은 코로나19 영향 완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선진국, 신흥국의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전력기기 부문은 최근 구조조정을 통한 고정비 절감, 스마트팩토리 구축, 북미법인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조선해양 부문의 실적 저하를 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룹의 전반적인 사업실적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특히, 2022년 상반기에는 정유화학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그룹 합산 매출액 29조원, EBIT 1.7조원, EBIT/매출액 5.9%로 사업실적이 크게 개선되었다.

현대중공업그룹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06	2022.06
조선 등	매출액	153,182	130,915	151,826	149,037	154,934	74,788	80,963
	EBIT	1,014	-5,109	2,902	744	-13,848	-8,298	-6,615
	EBIT/매출액	0.7%	-3.9%	1.9%	0.5%	-8.9%	-11.1%	-8.2%
정유화학	매출액	163,873	215,036	211,168	136,899	206,066	94,805	160,434
	EBIT	11,378	6,610	5,220	-5,933	11,424	6,785	20,748
	EBIT/매출액	6.9%	3.1%	2.5%	-4.3%	5.5%	7.2%	12.9%
건설장비	매출액	18,867	32,339	28,521	23,905	49,625	19,175	41,500
	EBIT	952	2,087	1,578	874	1,980	1,504	2,749
	EBIT/매출액	4.7%	2.1%	0.0%	3.7%	4.0%	7.8%	6.6%
전기전자	매출액	14,496	19,404	17,711	18,113	18,060	8,043	8,919
	EBIT	624	-1,006	-1,567	727	97	440	440
	EBIT/매출액	4.3%	-5.2%	-8.8%	4.0%	0.5%	5.5%	4.9%
합계	매출액	350,418	397,694	409,226	327,954	428,685	196,811	291,816
	EBIT	13,969	2,582	8,133	-3,588	-347	431	17,322
	EBIT/매출액	4.0%	0.6%	2.0%	-1.1%	-0.1%	0.2%	5.9%

자료: 각 사 공시자료

주1: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정유화학 1사(현대오일뱅크), 건설장비 2사(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전기전자 1사(현대일렉트릭) 기준

주2: 조선 3사는 2019년 이후 한국조선해양 연결재무제표 기준, 정유화학 1사 및 건설장비 2사, 전기전자 1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3: 2017년 건설장비, 전기전자부문 실적은 분할 이후 4~12월 기준

[조선부문]

조선부문은 최근 원재료 가격의 인상을 반영하면서 대규모 영업 손실 기록하였으나, 신조선가 상승, 신규 수주 증가하여 수익성 개선될 전망

조선부문은 2021년 그룹 매출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상선 및 해양플랜트 건조 등의 사업분야로 구성된다. 조선부문은 세계 최대규모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다종의 선박에 대해 풍부한 건조경험 및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대부분의 선종에서 수위권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 내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합산시 그룹은 글로벌 조선산업 수주잔량의 17% 내외를 점유하고 있어 글로벌 조선산업 내에서 그룹의 시장지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수한 수주경쟁력, 자체 선박엔진 제조를 바탕으로 기자재 구매력, 전후방 교섭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조선 3사간 영업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건조효율성이 높은 수준이다.

조선부문의 신규수주는 2016년 76억\$로 크게 감소한 이후 2017~2019년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신조 발주가 감소하면서 조선부문의 신규수주가 전기 대비 22% 감소하였다. 다만, 2020년 4분기 이후 경제 회복에 따른 해상 물동량 증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조선업 발주

환경이 개선되면서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물동량 증가,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해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조선 발주 호황을 견인하였으며, 2022년에는 컨테이너선의 발주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카타르 프로젝트 등으로 LNG선의 발주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수주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 부문은 2021년 211억\$, 2022년 상반기 140억\$를 수주하였으며, 수주잔고가 360억\$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조선부문은 2020년까지 신규수주가 부진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하고 고정비 부담으로 저조한 영업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강제가 인상에 따른 대규모 공사손실충당금, 통상임금 소송 관련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영업손실 1.4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에도 공사손실충당금 설정 등으로 영업손실 0.7조원을 기록하였다.

2021년 1월 이후 신조선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신규 수주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주와 매출 발생 시점간 시차를 고려할 때 2020년 부진한 신규 수주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매출 규모는 정체될 것으로 보이고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어 절대적 수익성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양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어 비경상적 손실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고, 환경규제 강화로 경쟁력을 보유한 친환경 엔진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진 부문의 실적 개선에 따른 이익기여도 확대 등이 영업수익성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가운데,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한 신조선가를 반영한 수주 물량이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면서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화학부문]

정유화학부문은 2020년 코로나 19 영향으로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이후 유가 상승에 따라 영업실적 반등

정유화학부문은 2021년 그룹 매출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의 정유사업과 조인트벤처(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등)를 통한 석유화학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과 함께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대규모 정제능력을 보유한 가운데 고도화설비 비율은 국내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조인트벤처를 통해 윤활기유(현대셀베이스오일), 석유화학(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카본블랙(현대오씨아이) 부문으로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정유화학부문은 국제 유가, 제품 스프레드,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실적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다. 2018년 4분기 이후 높은 유가변동성, 국내외 경기둔화 기초, 업계 신증설 부담 등에 따라 이익창출력이 둔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정제마진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주요 석유화학제품인 MX도 전방 PX시장 악화 등으로 수급여건 및 제품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2020년 상반기 유가급락에 따른 대규모 재고관련 손실도 발생하며, 연길기준 연간 5,93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2021년 이후 유가 상승으로 인한 재고관련 손익 효과, 정제 마진 및 석유화학제품 스프레드 회복, 2020년 11월 연결편입된 윤활기유사업의 우수한 이익창출력 등을 바탕으로 연결기준 1.1조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며 전년 영업적자폭을 상회하였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공급망 혼란이 발생하면서 유가와 정제마진

이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정유 부문의 2022년 상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과거 대비 크게 확대된 16조원, 2.1조원을 기록하였다. 향후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로 이동수요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정제설비의 제한적인 증설기조를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 개선된 수급구조를 바탕으로 우수한 영업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장비부문]

건설장비부문은 2020년 코로나 19 영향으로 전기 대비 실적이 다소 저하되었으나, 2021년 이후 실적 개선

건설장비부문은 2021년 그룹 매출의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대형 굴삭기, 휠로더, 산업차량 등 건설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와 2021년 8월 인수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2개사로 구성되어있다.

국내 건설기계시장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볼보 3개사가 과점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그룹이 과거 경쟁관계에 있던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하면서 국내 독점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 점유율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3.7%(글로벌 10위), 현대건설기계 1.2%(글로벌 21위) 수준이며, 양사 합산시 시장점유율은 4.9%로 6위의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업계 선두기업과는 매출 외형 및 생산기종 다변화 수준 등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나, 인도, 중남미, 러시아, 동남아 등 다수의 신흥국 시장에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어 단일시장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건설기계 수요가 감소하여 매출액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었다. 그러나, 2021년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되면서 선진시장의 건설기계 수요가 회복되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신흥시장의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여 사업실적이 개선되었다. 최근 중국 시장의 건설기계 수요는 둔화되었으나 중국 이외의 지역은 여전히 양호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룹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인수로 글로벌 판매망 공유, 구매 및 연구개발비 절감, 건설기계 엔진 내재화 등 사업적 시너지 효과가 발현되어 양호한 사업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전자부문]

전기전자부문은 2018~2019년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자구안 추진으로 2020년 이후 실적 개선

전기전자부문은 2021년 그룹 매출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기기 및 전력시스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1개사로 구성되어있다.

전기전자부문은 전력기기, 배전기기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국내 전력기기 시장 내 주요 제품군에서 우수한 시장지위를 보유(2021년 기준 전력변압기 M/S 27%, 고압차단기 M/S 21% 등)하고 있다. 전기전자부문의 영업수익성은 수주정책과 각국의 전력 정책, 경쟁환경 변화 등에 따른 높은 실적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과거 고유가 당시 수주한 채산성이 우수한 중동지역 물량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2017년까지 양호한 영업수익성을 기록하였으나, 유가 하락,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해외 수주가 감소하였고, 2019년 한국전력의 실적 악화로 국내 수주도 감소하면서 2018~2019년 매출액이 감소하고 영업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이에 전기전자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한 고정비 절감, 국내 생산공장 스마트팩토리 구축, 북미법인 현지생산 확대 등을 통한 생산효율성 개선 등 자구안을 추진하면서 2020년 이후에는 사업실적이 개선되었다. 2021년에는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총당금 1,153억원(영업비용 815억원, 영업외비용 338억원)을 설정하면서 EBIT/매출액이 0.5%로 저하되었다. 다만, 일회성 비용의 영향을 제외하면 양호한 수익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동, 북미 지역 영업 환경 개선, 조선산업 회복에 따른 선박용 제품 수주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양호한 수준의 수익성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재무분석

그룹의 재무안정성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최근 정유화학 부문의 CAPEX, 운전자금 부담 등으로 차입부담 증가 추세

금번 보고서의 재무분석은 2022년 6월말 기준 재무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룹의 국내외 계열사를 연결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에이치디현대(주)와 한국조선해양(주)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하였다.

2022년 6월말 그룹의 부채비율은 202.2%, 차입금의존도 31.9%, 총차입금/EBITDA 4.0배, EBITDA/금융비용 6.7배로 재무안정성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 그룹은 과거 조선업황이 급격하게 침체되고 조선해양 부문의 운전자금 부담 증가 및 대규모 손실발생 등으로 차입부담이 확대되고 재무안정성이 저하된 바 있으나, 2018년까지 보유자산 매각, 유상증자, 구조조정 등 대규모 자구안을 이행하여 재무안정성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었다. 다만, 2019년에는 현대오일뱅크 소수 지분 매각대금(지분율 17%, 1.4조원)이 유입되었으나, 2019년 이후 정유화학 부문의 HPC(Heavy feed Petrochemical Complex) 및 폴리머 공정 투자소요가 확대되고,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실적이 저하되면서 그룹의 차입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대중공업그룹 재무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1.06	2022.06
총자산	444,588	471,019	484,121	600,539	519,836	680,118
자본	200,462	211,420	201,281	212,464	198,122	225,034
총차입금	117,752	139,958	173,137	204,407	191,580	216,652
순차입금	61,131	75,711	104,709	128,124	109,852	142,647
EBITDA	12,358	20,399	6,648	10,009	4,885	27,373
CAPEX	10,740	15,270	25,742	25,135	-13,334	7,638
부채비율	121.8%	122.8%	140.5%	182.7%	162.4%	202.2%
차입금의존도	26.5%	29.7%	35.8%	34.0%	36.9%	31.9%
총차입금/EBITDA	9.5	6.9	26.0	20.4	19.6	4.0

자료: 각 사 공시자료

주: 2021년까지는 한국조선해양과 에이치디현대의 연결 재무제표 합산 기준, 2022년 이후 에이치디현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1년에는 정유화학 부문의 CAPEX 부담 지속,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위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계열 편입에도 불구하고, 현대글로벌서비스 Pre-IPO(지분율 38%, 선배당 포함 0.8조원), 조선해양부문 신규 수주 증가에 따른 선수금 유입, 현대중공업 IPO 등을 통해 그룹의 차입금의존도는 전기말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정유화학 부문의 사업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으로 운전자금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그룹의 차입금 규모는 소폭 증가하였다.

V. 주요 계열사 등급변동 현황 및 향후 방향성

2022년 7월말 기준 에이치디현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오일뱅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6개사가 당사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고 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2021년 8월 그룹에 인수된 이후 계열로부터 지원수혜 가능성이 제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신용등급이 BBB↑에서 BBB+/Positive로 상향된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정기평가에서는 1) 건설기계 시장 내 우수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 내 건설기계 사업부문과 영업망 효율화, 연구개발, 부품조달 등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양호한 사업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2) 2021년 12월 6,833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여 차입부담을 완화하였으며, EBITDA창출 규모 등 현금 창출능력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재무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A-/Stable로 상향하였다.

에이치디현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오일뱅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은 2022년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기존의 신용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각 회사의 향후 영업실적, 재무안정성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여 신용등급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건설기계는 2022년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기존의 신용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2022년 7월 중 유효기한이 만료되어 등급이 소멸하였다.

주요 계열사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 변동 현황

구분	기업명	업종	장기신용등급		단기신용등급	
			2021.12	2022.07	2021.12	2022.07
상향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BBB+/P	A-/S	A3+	-

주1: 2022년 7월말 현재 NICE신용평가(주) 보유 유효등급 기준.

Appendix 1: 현대중공업그룹 주요 계열사 등급현황 및 등급변동 검토요인

현대중공업그룹 주요 계열사 등급현황

기업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에이치디현대	장기	A-/N(*)	A-/S(*)	A-/S(*)	A-/S(*)	A/S, A/S(*)	A/S
	단기	A2-	A2-	-	-		A2
한국조선해양	장기	A-/N	A-/N	-	-		
	단기	A2-	-	-	-		
현대중공업	장기	-	-	-	-	A/S	A/S
	단기	-	-	-	-	A2	
현대삼호중공업	장기	BBB+/N	BBB+/N	-	-	A-/S	A-/S
	단기	A3+	A3+	-	-	A2-	A2-
현대미포조선	장기	-	-	-	-		
	단기	A3+	A3+	-	-		
현대오일뱅크	장기	AA-/S	AA-/S	AA-/S	AA-/S	AA-/S	AA-/S
	단기	A1	A1	A1	A1	A1	A1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장기	-	A-/S	A-/N	A-/N	A-/S	A-/S
	단기	A2-	A2-	A2-	A2-	A2-	A2-
현대건설기계	장기	-	A-/S	A-/S	A-/S	A-/S	
	단기	-	-	-	A2-	A2-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장기	BBB/S	BBB/S	BBB/S	BBB◆	BBB+/P	A-/S
	단기	A3	A3			A3+	

주1: 2022년 등급은 2022년 7월말 NICE신용평가(주) 보유 유효등급 기준임.

주2: 등급전망(Outlook)은 P(Positive:긍정적), S(Stable:안정적), N(Negative:부정적), D(Developing:유동적)으로 구분됨.

주3: 등급감시(Watch)는 상향검토(↑), 하향검토(↓), 불확실검토(◆)로 구분됨.

주4: (*)는 4개사(현대중공업지주, 한국조선해양,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연대보증채권

현대중공업그룹 주요 계열사 등급변동 검토요인

기업명	신용등급	재무제표	구분	등급변동 검토요인
에이치디현대	A/S	별도	상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자체적인 재무안정성이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주력 사업자회사들의 신용도가 개선되는 경우
			하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의 자체적인 재무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력 사업자회사들의 신용도가 저하되는 경우
현대중공업	A/S	별도	상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주실적의 가시적인 회복세 전환, 주요 선종 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의 조선업황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조선업황 회복 등을 바탕으로 매출수준 및 현금창출능력이 확대되고, 재무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하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업 시장환경의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심화 및 수주 부진 등으로 적정 원가율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전자금 부담 가중 및 제한적 현금흐름 지속 등으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되어 별도기준 EBITDA/매출액 3% 이하, 조정부채비율 150% 초과 상기 지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대삼호중공업	A-/S	개별	상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주실적 개선, 주요 선종 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 조선업황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BITDA/매출액 5% 이상, 조정부채비율 80% 이하 상기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하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업황의 개선이 지연되고, 영업수익성 저하, 운전자금 부담 가중으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되어 EBITDA/매출액 1% 미만, 조정부채비율 150% 초과 상기 지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대오일뱅크	AA-/S	연결	상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개선과 재무부담 축소로 현대중공업 계열의 신인도가 개선되고, 회사 자체적으로 투자효과 등에 기반한 현금창출력 개선 및 채무부담 감소에 따라 연결기준 OCF/순차입금 지표가 20%를 안정적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하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중공업 계열의 영업실적 저하로 계열에 대한 지원부담이 증가하거나 부정적인 영업환경으로 현금창출력 저하가 지속되어 OCF/순차입금 지표가 10%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A-/S	연결	상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강화, 사업다각화 수준 및 영업수익성 제고 등과 함께 연결기준 EBIT/매출액 6% 상회, 총차입금/EBITDA 4배 하회 상기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하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 제품 시장환경 저하 및 회사의 대응력 약화 등으로 실적변동성이 확대되고 수익창출력을 상회하는 비경상적 투자 집행이 지속되어, 연결기준 EBIT/매출액 2% 하회, 순차입금의존도 30% 상회 상기 지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대두산인프라코어	A-/S	연결	상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경쟁력 제고, 이익창출력 개선 등으로 연결기준 총차입금/EBITDA 3배 이하 & 순차입금의존도 15% 이하 상기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하향조정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심화 또는 전방산업 둔화 등으로 이익창출력이 저하되어 연결기준 총차입금/EBITDA 5배 초과 or 순차입금의존도 30% 초과 상기 지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1: 최근 유효등급 공시 건 기준

주2: 등급 변동 검토는 상기 요인·지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됨.

Appendix 2: 현대중공업그룹 주요기업 사업 및 재무현황

현대중공업그룹 주요기업 사업 및 재무현황

단위: 억원, %, 배

구분	연도	총자산	총차입금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매출액	EBIT	EBITDA	EBIT/매출액	EBITDA/금융비용	총차입금/EBITDA	영업 현금흐름	잉여 현금흐름
에이치디현대 (연결)	2019	233,478	78,748	121.2	33.7	272,566	8,614	13,634	3.2	6.1	5.8	6,681	-2,401
	2020	257,155	86,496	116.4	33.6	266,303	6,666	13,465	2.5	4.6	6.4	12,056	334
	2021	265,590	108,744	139.3	40.9	189,110	-5,971	1,813	-3.2	0.8	60.0	8,871	-13,448
	2021.6	358,157	151,804	201.3	42.4	281,587	10,854	19,870	3.9	6.8	7.6	2,058	-19,314
	2022.6	296,727	124,220	166.0	41.9	124,058	7,189	11,235	5.8	8.9	5.5	4,848	-7,059
한국조선 해양 (연결)	2019	250,554	53,462	93.8	21.3	151,826	2,902	6,934	1.9	4.2	7.7	-14,641	-18,189
	2020	252,442	64,393	103.2	25.5	149,037	744	4,835	0.5	2.3	13.3	-900	-4,323
	2021	272,931	52,603	119.9	19.3	154,934	-13,848	-9,861	-8.9	-5.6	-5.3	8,358	4,596
	2021.6	255,669	60,825	114.6	23.8	74,788	-8,298	-6,350	-11.1	-6.8	-4.8	14,512	13,085
2022.6	299,217	54,431	145.1	18.2	80,963	-6,615	-4,599	-8.2	-5.9	-5.9	2,278	-197	
현대중공업 (개별)	2019	138,695	39,111	146.7	28.2	54,567	1,295	2,796	2.4	3.5	14.0	-5,852	-7,376
	2020	137,997	45,630	157.4	33.1	83,102	325	2,848	0.4	1.8	16.0	-2,001	-4,287
	2021	150,788	34,846	169.6	23.1	83,040	-8,006	-5,613	-9.6	-4.5	-6.2	7,619	5,117
	2021.6	137,665	42,226	173.4	30.7	39,331	-3,942	-2,783	-10.0	-4.2	-7.6	10,589	9,558
	2022.6	162,252	33,650	201.2	20.7	41,678	-3,242	-2,030	-7.8	-4.0	-8.3	10	-1,764
현대삼호 중공업 (개별)	2019	43,145	8,919	123.3	20.7	34,883	52	746	0.2	3.5	12.0	-1,845	-2,507
	2020	45,815	12,877	142.0	28.1	39,180	156	855	0.4	2.3	15.1	-1,819	-1,971
	2021	49,801	12,122	197.7	24.3	41,416	-3,072	-2,360	-7.4	-6.1	-5.1	173	-184
	2021.6	46,086	12,369	167.0	26.8	21,122	-2,495	-2,143	-11.8	-10.9	-2.9	2,049	1,902
	2022.6	57,840	14,901	280.6	25.8	20,612	-2,308	-1,957	-11.2	-8.8	-3.8	-284	-483
현대미포 조선 (연결)	2019	33,806	2,305	43.6	6.8	29,941	926	1,457	3.1	15.2	1.6	-724	-1,458
	2020	35,536	1,626	53.0	4.6	27,808	66	459	0.2	11.1	3.5	2,348	1,626
	2021	38,783	1,792	75.9	4.6	28,872	-2,173	-1,618	-7.5	-46.3	-1.1	696	84
	2021.6	37,208	1,990	65.1	5.4	14,073	-1,746	-1,468	-12.4	-75.6	-0.7	2,585	2,426
	2022.6	44,032	2,029	99.2	4.6	18,114	-684	-396	-3.8	-19.5	-2.6	2,753	2,199
현대오일 뱅크 (연결)	2019	128,559	43,516	136.3	33.9	211,168	5,220	10,490	2.5	7.6	4.2	8,561	-203
	2020	146,762	66,846	178.4	45.6	136,899	-5,933	144	-4.3	0.1	464.1	6,854	-13,300
	2021	182,261	84,315	216.4	46.3	206,066	11,424	17,995	5.5	14.4	4.7	4,850	-14,040
	2021.6	170,703	81,629	204.3	47.8	94,805	6,785	10,063	7.2	15.7	4.1	-1,898	-12,856
	2022.6	221,047	91,521	243.1	41.4	160,434	20,748	24,251	12.9	30.9	1.9	2,728	-1,751
현대일렉 앤에너지 시스템 (연결)	2019	22,565	7,817	222.3	34.6	17,711	-1,567	-1,209	-8.9	-3.6	-6.5	575	-416
	2020	22,726	7,805	234.6	34.4	18,113	727	1,146	4.0	3.8	6.8	2,045	1,427
	2021	22,150	5,546	242.8	25.0	18,060	97	526	0.5	2.1	10.6	1,098	770
	2021.6	22,654	7,449	219.2	32.9	8,043	440	651	5.5	4.9	5.7	762	608
	2022.6	22,867	5,997	236.8	26.2	8,919	440	659	4.9	6.1	4.6	-2,085	-2,235
현대건설 기계 (연결)	2019	31,881	11,453	102.1	35.9	28,521	1,578	2,334	5.5	6.0	4.9	1,553	63
	2020	33,559	12,379	111.4	36.9	26,175	916	1,615	3.5	4.5	7.7	2,748	1,681
	2021	35,543	12,765	129.6	35.9	32,843	1,607	2,274	4.9	7.7	5.6	-1,960	-2,707
	2021.6	37,123	12,345	114.0	33.3	19,175	1,504	1,843	7.8	11.4	3.4	-511	-1,014
	2022.6	36,050	12,325	118.7	34.2	18,075	834	1,144	4.6	7.1	5.4	1,793	1,607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연결)	2019	113,386	39,829	165.7	35.1	81,858	8,404	10,892	10.3	5.3	3.7	5,674	1,613
	2020	120,269	43,665	167.9	36.3	39,881	2,644	5,519	6.6	5.1	7.9	10,508	7,486
	2021	47,823	17,845	249.1	37.3	45,937	2,645	4,844	5.8	4.8	3.7	1,981	496
	2021.6	137,556	23,604	319.8	17.2	25,858	2,190	3,732	8.5	7.1	3.2	1,998	967
	2022.6	48,689	19,172	219.0	39.4	23,425	1,915	2,679	8.2	5.9	3.6	-1,541	-2,070

자료: 각 사 공시자료

유의사항

NICE신용평가(주)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신용평가(주)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는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류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 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제1차 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평가 대상인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든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주)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건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에서 작성한 발간물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